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건설현장 안전문화확산' 캠페인

김상준 | 승인 2025.10.30 17:54 | 10면

“안전이 곧 생명, 건설현장 안전문화 실천”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지난 29일 2025년 합천지사 '안전이 곧 생명, 건설현장 안전문화 실천을!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지사장 김동원)에서는 지난 29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합천지사 '안전이 곧 생명, 건설현장 안전문화 실천을!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등 현장관계자 약 20명이 함께 참여해 합천군 안전체험관에서 실시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사고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참석자들은 지진 및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우고,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실습했다. 이번 실습은 응급의료 전문 강사가 단계별로 시범을 보이고 참가자가 반복 연습을 통해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4D 교육 영상을 통해 시각·청각적 몰입도를 높여 재난·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 현장의 특성에 맞는 주요 재해 유형별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작업별 위험요인 점검표 작성, ▲일일 안전점검 및 즉각적 조치 절차, ▲사고 발생 시 보고·전파·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으로 구체화해 근로자 주도의 자율안전점검체계 도입과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캠페인은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재해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근로자 참여형 모의훈련·현장 맞춤형 시나리오 적용 등 실무에 바로 연결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한편 김동원 합천지사장은 “앞으로도 직·간접적 체험중심의 안전교육과 발주처, 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안전관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